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2021년 4월 5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백석준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21장 다 같 이
기 도 백운성 집사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22:16~21 인 도 자
설 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백석준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18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16~21>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2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3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2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3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 때 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겠네

4월 6일(화) 기도 담당 : 신범상 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4월 5일(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월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새문안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위기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과 그 가정을 은혜가운데 지켜주시고, 목사님 더욱 성령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가의
일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4월7일 진행되는 보궐선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국민을 정직히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수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
시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속히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